

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 조망수용과 편견의 매개효과*

최 가 희*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망수용과 편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접촉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접촉의 양과 질 각각이 조망수용과 편견을 통해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총 642명의 대학생이 접촉, 일상의 다문화 역량, 조망수용, 편견 등을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접촉의 양과 질 모두가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촉의 질적인 측면이 양적인 측면에 비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망수용과 편견은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접촉의 양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과의 교류가 친밀하고 긍정적인 때 조망수용 증진과 편견 감소를 통하여 다문화 역량 함양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류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조망수용 증진과 편견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다문화 접촉, 다문화 역량, 조망수용, 편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5079).

† 교신저자 : 최가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봉경관 246호

E-mail: choigh@km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약 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3). 또한, 한국 대학에서 수강하고 있는 외국 학생의 수는 2010년 83,842명에서 2021년 152,28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이처럼 한국사회의 구성원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긍정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을까?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한지원, 장희주, 2020),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54.1%가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이는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이 살아가기에 한국 사회가 아직 녹록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함께 잘 지낼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개념이다. 다문화 역량은 한 개인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며,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Howard-Hamilton et al., 2011; Mio et al., 2012; Sue et al., 1992). 따라서 한 개인의 다문화 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명확히 인식하며, 자신과 상이한 문화 속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수용하고,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문화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다문화 역량 수준이 높은 개인은 한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 특권, 차별이 한 개인의 삶과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한국의 대학 또한 다문화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의 대학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수용적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박혜숙(2016)의 연구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의 평가는 한국인 대학생 자신의 평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한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료 학생 및 교수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수아, 김태호, 2011; 임춘희, 2009; 하정희, 2008).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대학의 국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구성원이 타문화에 대해 가지는 다문화 역량은 아직 미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가 보다 내실 있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성원의 다양화를 오랜 시간 경험해왔던 미국에서는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다(Mallinckrodt et al., 2014). 예를 들어, 미국 사회 및 대학에서는 다문화 역량이 공식적인 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기존의 과목에 다문화 역량의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대학생 및 대학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프로그

램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Bell et al., 2007; Elleven et al., 2001). 이는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다문화 역량 함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인 및 심리 내적 요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역량 관련 연구는 교육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나 아동 및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측정도구의 개발(권순구, 한동균, 2022; 김미진 등, 2019; 박명희, 김경식, 2015)이나 문화적 감수성이나 전문가의 역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윤경, 2022; 이공숙, 임은미, 2023; 이수진, 박영신, 2022)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다문화 역량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 문화적 접촉경험, 조망수용, 편견에 관심을 가지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당수의 연구는 문화적 접촉경험이 다문화 역량 및 다문화 수용성, 타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고경미, 최혜운, 2017; 김금미, 안상수, 2014; 김성훈, 이경화, 2017; 박순희, 유지형, 2017; 송나은, 정가윤, 2021; Korol et al., 2018; Pettigrew & Tropp, 2006; Pettigrew & Tropp, 2011; Pettigrew et al., 2011). 유사하게, Livert(2016)는 3주간 베트남을 여행한 미국 학생들이 접촉경험을 통해 베트남 문화 및 베트남인들에 대해 유대감과 긍정

적 정서를 경험하고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과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Amir(1969)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과의 접촉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집단 간 접촉이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즐거우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친밀한 종류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접촉의 종류에 따라 타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Pettigrew 등(2011)은 집단 간 접촉의 질이 접촉의 양보다 더 강력하게 타집단에 대한 수용성 및 태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고, Korol 등(2018)은 접촉의 양과 질 모두가 타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되나, 접촉의 양에 비해 접촉의 질이 보다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소수집단의 구성원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소수집단의 구성원과 가까이 있다거나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집단과의 자발적이고 우호적이며 평등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접촉경험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의 빈도에 초점을 맞춘 양적인 측면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접촉할 때 그 관계의 친밀성, 동등성, 우호성 등 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면으로 구분하고, 접촉의 양과 질이 다문

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보고자 하였다.

문화적 접촉 경험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편견의 감소는 주요한 심리적 기제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과의 접촉 경험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 및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김혜숙 등, 2011; 류승아, 2017; 양계민, 이우영, 2016; Tadmor et al., 2018; Pettigrew, 1997; Shook et al., 2016; Wolsko et al., 2000).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인종 간의 접촉 경험이 타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 Allport(1954)의 접촉이론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양한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막연히 가졌던 적대감과 부정적인 태도 변화가 가능해진다(Aaronson et al., 2018; Quinton, 2019). 또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막연히 가지는 편향적 사고 및 정서가 변화하게 되면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Choudhuri et al., 2015).

한편 접촉 경험, 편견,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 있어서 조망수용의 역할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은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Davis, 1983). 따라서 조망수용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Constantine, 2001; Ku et al., 2015; Parker et al., 2008). Miklikowska(2018)는 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망수용과 이민자

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조망수용이 스웨덴 청소년이 자신과 이민자의 유사성을 지각하도록 도우며, 이민자들의 경험과 독특한 요구에 정서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행해지는 차별에 반대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Galinsky, 1999, 2002; Galinsky & Ku, 2008)는 조망수용이 집단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편견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망수용은 다양한 문화집단과의 접촉 경험을 통해 증진 가능하다. Galinsky와 Moskowitz(2000)는 타집단 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해 타집단의 구성원에게 매력을 느끼고 유사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타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조망수용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접촉경험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헤아리고, 타인의 삶과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는 조망수용이 이루어지면서 편견이 감소할 수 있다(Abersson & Haag, 2007; Pettigrew, 1997, 1998; Pettigrew & Tropp, 2006). 예를 들어, 평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소수 인종집단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삶의 경험 및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 및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편견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접촉경험을 통해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이 증진되면서, 편견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다문화 역량이 증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접촉 경험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접촉의 양과 질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른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접촉경험이 조망수용 증가와 편견의 감소를 통해서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접촉경험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은 각각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접촉경험의 양은 조망수용과 편견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접촉경험의 질은 조망수용과 편견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40525-202102-HR-093).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국의 대학생 64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및 부작용, 비밀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642명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연구 참여자 4명은 제외하여, 총 638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2.18세 ($SD=1.80$)이었다. 남녀 비율은 남학생 312명 (48.9%), 여학생 326명(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년으로는 1학년 40명(6.3%), 2학년 172명(27.0%), 3학년 208명(32.6%), 4학년 205명(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로는 서울특별시 91명(14.3%), 인천광역시 58명(9.1%), 경기도 92명(14.4%), 강원도 26명(4.1%), 대전광역시 46명(7.2%), 충청도 42명(6.6%), 세종특별자치시 8명(1.3%), 부산광역시 48명(7.5%), 울산광역시 35명(5.5%), 경상도 47명(7.4%), 대구광역시 50명(7.8%), 광주광역시 39명(6.1%), 전라도 43명(6.7%), 제주특별자치도 13명(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접촉경험

접촉 경험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Korol 등(2018)이 집단간 접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Korol 등(2018)은 학생들이 캠퍼스 및 이웃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접촉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접촉의 양에 대한 5문항, 접촉의 질에 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접촉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서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자주 교류합니까?”,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이웃에서 얼마나 자주 교류합니까?”,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가까운 친구로서 얼마나 자주 교류합니까?”,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자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눕니까?”,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의 집에 얼마나 자주 방문합니까?” 등의 문항이 사용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은 전혀 없음(1점)에서 매우 자주(5점) 상에서 응답하였다. 접촉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서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느끼니까?”,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 만남이 얼마나 자발적이라고 느끼니까?”,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다고 느끼니까?”,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즐겁다고 느끼니까?”, “나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 관계가 얼마나 협력적이라고 느끼니까?” 등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전혀 없음(1점)에서 매우 자주(5점) 상에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의 양과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접촉의 양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8, 접촉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수용

조망수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80)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중 조망수용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조망수용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예: “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 모두의 생각을 살펴보고 노력한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전혀)에서 5점(매우)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조망수용 수준을 보임을 나타낸다. Sparkman과 Eidelman(2016)의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기 위해 김상학(2004)이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홍성원과 이인혜(2015)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홍성원과 이인혜(2015)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9문항,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3문항,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인지 중 외국인 집단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는 3문항과 정서 편견을 측정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의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성원과 이인혜(2015)의 연구에서 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인지 .80, 정서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인지 .84, 정서 .81이었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Mallinckrodt 등(2014)이 개발하고 최가희(2019)가 번안하고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일상의 다문화역량척도(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 / Revised Ethnocultural Empathy Scale; EMC/REMS)를 사용하였다. EMC/REMS는 대학 내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Howard-Hamilton, Cuyjet, & Cooper, 2011)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가 없다는 문제 제기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문화적 개방성과 배우고자 하는 바람, 분노 및 문화적 지배성, 불안 및 낮은 다문화 효능감, 공감적 조

망수용, 인종차별 및 편견의 인식, 공감적인 느낌 및 동맹으로 활동하기 등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에서는 최가희(2019)가 번안하고 타당도를 확인하면서 문화적 개방성을 측정하는 10문항, 문화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5문항,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4문항, 문화적 공감을 측정하는 4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6점(매우 동의한다)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으며,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문화적 개방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타문화에 대한 지식, 문화적 공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Mallinckrodt 등 (2014)의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62-.92의 범위를 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는 .6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90, 문화적 개방성 .89, 문화적 자기효능감 .78, 타문화에 대한 지식 .70, 문화적 공감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연구 참여자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문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김용석(2010)이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24; SDS-24) 중 자기기만을 측정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SDS-24는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무의식적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기만 요인과 자신을 호의적으로 보이려는 의도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인상관리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의 불일치가 커진다는 방희정 등

(2010)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무의식적 태도를 통제하고자 자기기만 요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서 자기기만 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자기기만의 내적합치도는 .77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Process macro program 버전 4.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접촉경험, 조망수용, 편견, 일상의 다문화 역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접촉의 양과 질 각각에 대해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사용하여 순차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변인 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접촉의 양은 접촉의 질($r=.349, p<.01$), 다문화 역량($r=.244, p<.01$), 조망수용($r=.125, p<.01$)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견과는 유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638)

	1	2	3	4	5	6
1. 접촉의 양	1					
2. 접촉의 질	.349**	1				
3. 조망수용	.125**	.268**	1			
4. 편견	-.020	-.334**	-.270**	1		
5. 다문화 역량	.244**	.543**	.437**	-.549**	1	
6. 사회적 바람직성	.131**	.311**	.433**	-.266**	.358**	1
평균	10.230	17.284	25.530	15.591	99.821	8.627
표준편차	4.070	3.682	3.787	6.939	13.711	3.482
왜도	0.729	-0.311	-0.058	0.632	-0.021	0.004
첨도	0.315	0.965	0.147	-0.010	0.459	-0.553

** $p < .01$.

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20$, $p = ns$). 반면 접촉의 질은 조망수용($r = .268$, $p < .01$), 편견($r = -.334$, $p < .01$), 다문화 역량($r = .543$, $p < .01$)과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은 모든 주요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므로 이후 주요분석 시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주요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주요변인이 대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접촉의 질과 일상의 다문화 역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편견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의 양과 조망수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접촉의 양[$F(4, 633) = 0.622$, $p = .647$], 접촉의 질[$F(4, 633) = 1.357$, $p = .247$], 조망수용[$F(4, 633) = .251$, $p = .909$], 편견[$F(4, 633) = .327$, $p = .860$], 일상의 다문화 역량[$F(4, 633) = .667$, $p = .615$]으로 학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주요분석 시 성별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접촉의 양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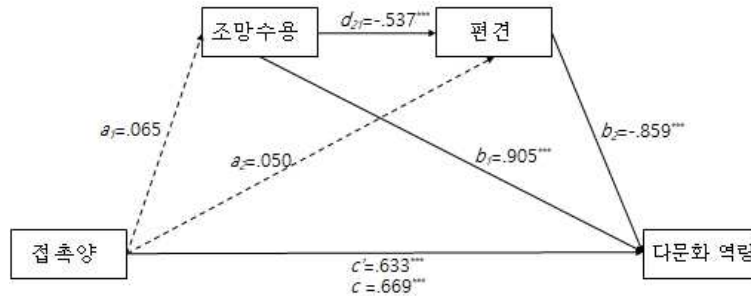
조망수용과 편견이 접촉의 양과 다문화 역량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gram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망수용과 편견을 모두 포함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했을 때, 접촉의 양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a_1 = .065$, $p = .053$). 다음으로, 접촉의 양이

표 2. 연구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i>t</i>	<i>p</i>
접촉 양	남자	312	2.042	0.836	-0.114	.909
	여자	326	2.050	0.793		
접촉 질	남자	312	3.386	0.757	-2.386	.017
	여자	326	3.525	0.711		
조망수용	남자	312	3.662	0.542	0.684	.494
	여자	326	3.633	0.540		
편견	남자	312	5.448	2.470	2.682	.008
	여자	326	4.957	2.128		
일상의 다문화역량	남자	312	4.247	0.633	-3.878	.000
	여자	326	4.429	0.545		

표 3. 접촉의 양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매개효과(*N*=638)

변인	<i>B</i>	<i>SE</i>	<i>t</i>	<i>p</i>
접촉의 양 → 조망수용	.065	.034	1.938	.053
성별	-.079	.271	-.294	.769
사회적 바람직성	.460	.039	11.740	.000
<i>R</i> (3, 634)=50.244, <i>p</i> <.001, <i>R</i> ² =.192				
접촉의 양 → 편견	.050	.065	0.780	.436
조망수용 → 편견	-.357	.076	-4.690	.000
성별	-1.652	.519	-3.183	.002
사회적 바람직성	-.378	.083	-4.558	.000
<i>R</i> (4, 633)=20.599, <i>p</i> <.001, <i>R</i> ² =.115				
접촉의 양 → 다문화 역량	.633	.100	6.312	.000
조망수용 → 다문화 역량	.905	.121	7.509	.000
편견 → 다문화 역량	-.859	.062	-13.902	.000
성별	3.202	.814	3.936	.000
사회적 바람직성	.451	.131	3.436	.001
<i>R</i> (5, 632)=104.581, <i>p</i> <.001, <i>R</i> ² =.453				



*** $p < .001$.

그림 1. 접촉의 양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매개효과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a_2 = .050$, $p = .436$), 조망수용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d_{21} = -.357$, $p = .001$). 조망수용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b_1 = .905$, $p < .001$)과 편견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b_2 = -.859$, $p < .001$) 또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접촉의 양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c' = .633$, $p < .001$)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망수용과 편견을 동시에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접촉의 양, 조망수용 및 편견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나 접촉의 양이 조망수용 및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접촉의 양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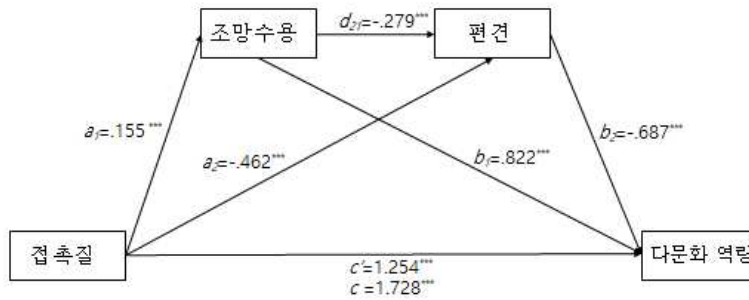
다음으로 조망수용과 편견이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gram model 6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조망수

용과 편견을 모두 포함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했을 때, 접촉의 질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a_1 = .155$, $p < .001$). 다음으로, 접촉의 질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a_2 = -.462$, $p < .001$) 및 조망수용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d_{21} = -.279$, $p < .001$). 마지막으로, 조망수용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b_1 = .822$, $p < .001$)과 편견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b_2 = -.687$, $p < .001$)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수용과 편견을 동시에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접촉의 질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c' = 1.254$, $p < .001$)은 유의미하였으며, 총효과의 수치인 1.728에서 그 값이 감소하였으므로,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적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program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재추출된 표본의 수는 5,000개였다.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접촉의 질이 조망수용을 거쳐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 계수

표 4.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매개효과(N=638)

변인	B	SE	t	p
접촉의 질 → 조망수용	.155	.039	4.027	.000
성별	-.196	.270	-.728	.467
사회적 바람직성	.419	.041	10.318	.000
$R3, (634)=55.356, p<.001, R^2=.208$				
접촉의 질 → 편견	-.462	.073	-6.298	.000
조망수용 → 편견	-.279	.075	-3.730	.000
성별	-1.280	.507	-2.523	.012
사회적 바람직성	-.254	.083	-3.080	.002
$R4, (633)=31.623, p<.001, R^2=.167$				
접촉의 질 → 다문화 역량	1.254	.115	10.953	.000
조망수용 → 다문화 역량	.822	.114	7.186	.000
편견 → 다문화 역량	-.687	.060	-11.414	.000
성별	2.540	.772	3.291	.001
사회적 바람직성	.262	.126	2.086	.037
$R5, (632)=132.132, p<.001, R^2=.511$				



*** $p<.001$.

그림 2.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매개효과

의 하한값은 .058, 상한값은 .210이었으며, 편견을 거쳐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 효과의 계수의 하한값은 .194, 상한값은 .461으로 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간접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접촉의 질이 조망수용과 편견을 통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은 .011, 상한값은 .055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순차적 부분매개효과가 확

표 5. 조망수용과 편견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638)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접촉의 질 → 조망수용 → 다문화 역량	.127	.039	.058	.210
접촉의 질 → 편견 → 다문화 역량	.317	.067	.194	.461
접촉의 질 → 조망수용 → 편견 → 다문화 역량	.030	.012	.011	.055

주.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경험을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접촉의 양과 질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적 접촉경험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638명의 대학생의 응답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여 순차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의 양과 접촉의 질은 모두 다문화 역량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문화집단의 구성원과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그 접촉이 친밀하고 평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수록 높은 수준의 다문화 역량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촉경험과 다문화 역량 및 다문화 감수성,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주장한 선행연구(고경미, 최혜운, 2017; 김금미, 안상수, 2014; 김성훈, 이경화, 2017; Korol et al., 2018; Pettigrew & Tropp,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접촉의 양보다는 접촉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Pettigrew 등(2011)의 결과와 일관되게, 본 연구의 주요모형 분석의 결과에서도 접촉의 질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접촉의 양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Amir (1969)의 주장이 한국의 문화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함양을 논의할 때, 다양한 문화적 접촉을 수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접촉의 종류가 어떠한지 질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고 상호교류적인지를 강조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조망수용과 편견은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촉의 질이 직접적으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망수용과 편견을 통해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른 집단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연구결과(Ku et al., 2015; Galinsky & Moskowitz, 2000)와 접촉경험이 편견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Pettigrew, 1997, 1998; Pettigrew & Tropp, 2006)

의 결과를 통합하고 보다 확장한 것이다. 더불어 접촉의 질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의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편견의 매개효과가 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하고 밀도있게 접촉했을 때 편견 수준이 감소하면서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집단과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통한 편견 감소 경험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접촉의 양은 다문화 역량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망수용 및 편견과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았으며, 접촉의 양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는 조망수용, 편견을 통해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의 양 또한 편견의 감소나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고 보고한 Korol 등(2018)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어떤 접촉경험은 오히려 집단 간 관계를 더 적대적으로 만들고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한 Saguy 등(2011)의 주장을 고려하면, 접촉의 빈도만으로는 조망수용의 증진과 편견 감소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주의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촉의 양이 다문화 역량의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과 다른 결과에 대해 매개변인의 선택과 관련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접촉의 양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망수용과 편견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3의 변인이 주요한 기제로 작용했

을 수 있다. 또한 접촉의 양과 조망수용 및 편견의 감소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가 존재하여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접촉의 양적 경험의 효과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의 양보다 접촉의 질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는 대학생이 다양한 문화적 접촉을 시도할 때 표피적인 수준에서 다양성만을 피하기보다는 질적으로 밀도있는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때 일시적으로 문화적 경험을 시도하는 것에 그치지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해당 문화와 그 집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타집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타집단의 다른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조망수용의 과정이 편견의 감소를 이끌어 다문화 역량 함양에 중요한 기제임을 보여주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을 받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타집단의 집단원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상대방의 독특한 입장, 즉 소수집단으로서 겪게 되는 독특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이해하며 차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Aaronson et al., 2018). 이는 대학생들이 문화적 접촉경험을 할 때, 조망수용을 통해 편견이 감소하도록 하는 개입이 효과적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망수용 및 편견과 관련된 개입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를 고려해볼 수 있다. 집단 간 대화는 인종, 성별, 성적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상이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일종의 집단상담이다(Zúñiga et al., 2007). 집단 간 대화 과정에서 집단원들은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편견을 재고하게 됨으로써 타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Bohm, 1996; Chen et al., 2003; Zúñiga et al., 2007; Zúñiga et al., 2002). 이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대화과정인 조망수용과 편견 감소라는 변화를 끌어내고 결과적으로 다문화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대학에서 다문화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을 사용하여 주요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연구 참여자가 보고한 접촉의 양과 질, 편견 수준, 조망수용 및 다문화 역량의 수준이 실제의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자각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접촉의 질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보고한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상대방에게는 다른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암묵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역량의 함양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며, 접촉경험을 통한 조망수용의 증진 및 편견의 감소를 통하여 다문화 역량이 형성 및 유지될 수도 있지만, 변인 간 관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와 다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결과 접촉의 양은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조망수용과 편견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촉의 양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때 조망수용 및 편견 이외의 심리적·사회적 기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보다 활발한 연구를 통해 접촉의 질과 양이 가져오는 효과의 기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접촉경험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집단과 접촉경험 양의 수준에 따라서 조망수용 및 편견의 매개효과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는 접촉의 양의 수준에 따른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접촉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즉, 다문화 역량은 대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캠퍼스라는 한 공간에 단순하게 같이 있음으로써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친밀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만날 때 보다 강력하게 함양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질적인 접촉경험을 통해서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는 조망수용 능력이 증진되고 편견이 감소하여 다문화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대학 국제

화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내실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경미, 최혜윤 (2017). 유치원교사의 다문화경험과 인식 및 수용성이 다문화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253-277.
- 국가인권위원회 (2022).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담은 이주민 인권 카드뉴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8920&menuLevel=3&menuNo=91>
- 권순구, 한동균 (2022). 학생용 다문화 역량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초등교육*, 33(2), 141-159.
- 김금미, 안상수 (2014).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315-338.
- 김미진, 김정은, 임정하 (2019).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척도개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2(1), 21-45.
- 김성훈, 이경화 (2017). 외국인 유학생과의 집단 간 접촉이 국내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 갈등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4), 191-212.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1), 169-206.
- 김수아, 김태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지각과 차별대처방식. *다문화교육연구*, 4(1), 1-17.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윤경 (2022). 간호학과 신입생의 문화적 역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12(2), 71-78.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 박명희, 김경식 (2015). 예비교사의 다문화 역량 척도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8(3), 1-37.
- 박순희, 유지형 (2017).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99-510.
- 박혜숙 (2016).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 비교. *인문사회과학연구*, (53), 41-64.
-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25-140.
- 법무부 (2023).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송나은, 정가운 (2021). 다문화 접촉경험과 다문화 교육이해가 다문화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5(2), 113-137.

- 양계민, 이우영 (2016).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 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131-152.
- 이공숙, 임은미 (2023). 초등교사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사회정의역량의 매개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40(1), 27-49.
- 이수진, 박영신 (2022). 유아교사 개인 변인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교수효능감, 다문화교수역량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21(4), 273-296.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최가희 (2019).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279-303.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국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mobile/search?searchTxt=%EA%B5%AD%EB%82%B4%20%EC%99%B8%EA%B5%AD%EC%9D%B8%EC%9C%A0%ED%95%99%EC%83%9D%ED%98%84%ED%99%A9>
- 한지원, 장희주 (2020, 12, 1). “한국 유학 왔는데 한국인 친구 없어요”... 곁도는 외국인 유학생.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7678
- 홍성원, 이인혜 (2015).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편집증적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339-353.
- Aaronson, E., Wilson, T. D., Akert, R. M., & Sommers, S. R. (2018). *사회심리학*(고재홍, 김민영, 박권생, 최윤경 옮김). 시그마프레스.
- Aberson, C. L., & Haag, S. C. (2007). Contact, perspective taking, and anxiety as predictors of stereotype endorsement, explicit attitudes, and implicit attitud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2), 179-201.
-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5), 319-342.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 Bell, L. A., Adams, M., & Griffin, P. (2007). *Teaching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New York.
- Bohm, D. (1996). *On dialogue*. New York: Routledge.
- Chen, E. C., Thombs, B. S., & Costa, C. I. (2003). Building connection through diversity in group counseling: A dialogue perspective. In D. B. Pope-Davis, H. L. K. Coleman, W. M. Liu, & R. Toporek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pp. 456-477). Thousand Oaks, CA: Sage.
- Choudhuri, D. D., Santiago-Rivera, A., & Garrett, T. L. (2015). *다문화 상담*(오인수 역). 박학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Constantine, M. G. (2001). Multicultural training, theoretical orientation, empathy, and multicultural caseconceptualization ability in

- counselor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4), 357-372.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0(7-B), 3480.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Elleven, R. K., Allen, J., & Wircenski, M. (2001). Resident assistant training: A southwestern perspective. *College Student Journal*, 35(4), 609-615.
- Galinsky, A. D. (1999). *Perspective-taking: Debiasing social though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 Galinsky, A. D. (2002). Creating and reducing intergroup conflict: The role of perspective-taking in affecting outgroup evaluations. In N. M. A. Mannix, E. A. Mannix, & H. Sondak (Eds.), *Toward phenomenology of groups and group membership* (Vol. 4, pp. 85-113). Greenwich, CT: JAI.
- Galinsky, A. D., & Ku, G. (2008). The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on prejudice: The moderating role of self-evalu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5), 594-604.
- Galinsky, A. D., & Moskowitz, G. B. (2000). Perspective-taking: Decreasing stereotype expression, stereotype accessibility, and in-group favorit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08-724.
- Howard-Hamilton, M. F., Cuyjet, M. J., & Cooper, D. L. (2011). Understanding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M. J. Cuyjet, M. F. Howard-Hamilton, & D. L. Cooper (Eds.), *Multiculturalism on campus: Theory, models, and practices for understanding diversity and creating inclusion* (pp. 11-18). Sterling, VA: Stylus.
- Korol, L., Fietzer, A. W., & Ponterotto, J. 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personality, intergroup contact, and positive outgroup attitudes toward Asian American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3), 200-210.
- Ku, G., Wang, C. S., & Galinsky, A. D. (2015). The promise and perversity of perspective-taking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5(24), 79-102.
- Livert, D. (2016). A cook's tour abroad: Long-term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on positive outgroup attitude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24-547.
- Mallinckrodt, B., Miles, J. R., Bhaskar, T., Chery, N., Choi, G., & Sung, M.-R. (2014). Development a comprehensive scale to assess college multicultural programm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1), 133-145.
- Miklikowska, M. (2018). Empathy trumps prejudice: The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anti-immigrant attitude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4(4), 703-717.
- Mio, J. S., Barker, L. A., & Tumambing, J. S. (2012). *Multi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our diverse communities*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er, S. K., Atkins, P. B., & Axtell, C. M. (2008). Building better workplaces through

- individual perspective taking: A fresh look at a fundamental human proces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3, 149-196.
- Pettigrew, T. F. (1997). Generalized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2), 173-185.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 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ettigrew, T. F., & Tropp, L. R. (2011). *When groups meet: The dynamics of intergroup contact*. Psychology Press.
- Pettigrew, T. F., Tropp, L. R., Wagner, U., & Christ, O. (2011). Recent advances in intergroup contac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3), 271-280.
- Quinton, W. J. (2019). Unwelcome on campus? Predictors of prejudice against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12(2), 156-169.
- Saguy, T., Tausch, N., Dovidio, J. F., Pratto, F., & Singh, P. (2011). Tension and harmony in intergroup relations. In P. R. Shaver & M. Mikulincer (Eds.),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Causes, manifestations and consequences* (Herzilya series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333-3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ook, N. J., Hopkins, P. D., & Koech, J. M. (2016). The effect of intergroup contact on secondary group attitudes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9(3), 328-342.
- Sparkman, D. J., & Eidelman, S. (2016). "Putting myself in their shoes": Ethnic perspective taking explains liberal-conservative differences in prejudice and stereoty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8, 1-5.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477-486.
- Tadmor, C. T., Hong, Y. Y., Chao, M. M., & Cohen, A. (2018). The tolerance benefi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depend on the perception of available ment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5(3), 398-426.
- Wolsko, C. Park, B., Judd, C. M., & Wittenbrink, B. (2000). Framing interethnic ideology: Effects of multicultural and color-blind perspectives on judgments of groups an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635-654.
- Zúñiga, X., Nagda, B. A., Chesler, M., & Cytron-Walker, A. (2007). Intergroup dialogue in higher education: Meaningful learning about social justice.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32(4), 1-128.
- Zúñiga, X., Nagda, B. A., & Sevig, T. D. (2002). Intergroup dialogues: An educational model for cultivating engagement across differences.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35(1), 7-17.

논문 투고일 : 2023. 06. 10
1차 심사일 : 2023. 06. 25
게재 확정일 : 2023. 07. 21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s and Multicultural Competency: Mediating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Gahee Choi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ntacts on multicultural competency. This study also examined mediating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Multicultural contacts were divided into quality of contacts and quantity of contacts. Effects of quality and quantity of contacts on multicultural competency through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were separately analyzed using two models. For the purpose, 642 Korean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multicultural contacts, multicultural competency, perspective taking, prejudice and demographic inform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contacts are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competency, but quality of contacts ar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competency. Also,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contacts and multicultural competency while mediators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quantity of contacts and multicultural competenc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timate and positive contacts with outgroup members help enhance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y through increased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reduction. Futur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should focus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multicultural contacts and help them with perspective taking, and reducing prejudic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ntacts, multicultural competency, perspective taking, prejudice